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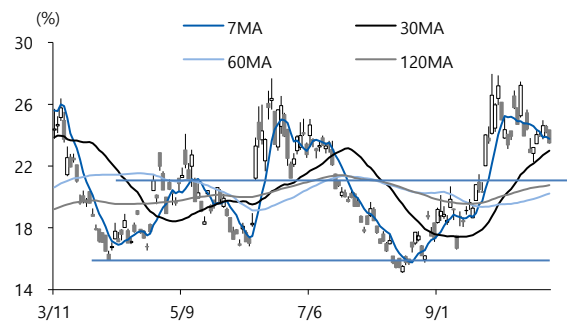


파생 시장의 긍정적 변화

1. KOSPI200 옵션, 변동성 고점대 형성

- VKOSPI, 9월 말에 6월 고점대 도달한 가운데 등락 반복하면서 고점대 형성 본격 하락 국면 진입 가능한 상황.
- 일반적으로 VKOSPI가 본격 하락 국면으로 진행될 때 주가도 의미 있는 반등 국면 진행.
-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전일 미니와 빅 합계로 10,285계약 순매수. 지수 상승과 더불어 강한 선물 매수세 유입되어 방향성 베팅으로 판단됨.

VKOSPI 일봉, 지난 6월 고점대 넘지 못한 가운데 점차로 축소되는 모습. 본격 하락 국면 진입 가능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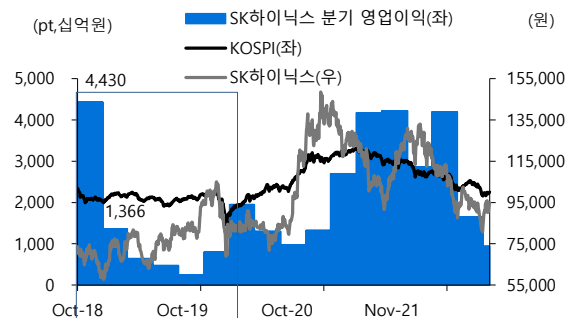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의 시사점

-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1조 6,556 억원으로 컨센서스 2조 1,596억원 크게 하회하고 전년 동기 대비 60.5% 감소. 그러나 전일 주가 +0.43% 상승.
- 장기 바닥권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실적 저점에 3분기 가량 선행하기도 함. 2019년 중에 이런 모습 보임.
- 기술적으로 60일 이평선 회복해 이전 저점대를 하회할 가능성 낮아짐. 본격 상승은 아니라도 하락세 진정 가능성 높다고 판단됨.

SK하이닉스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 주가는 실적에 비해 선행하는 모습 보여 주가 하락 제한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200 옵션, 변동성 고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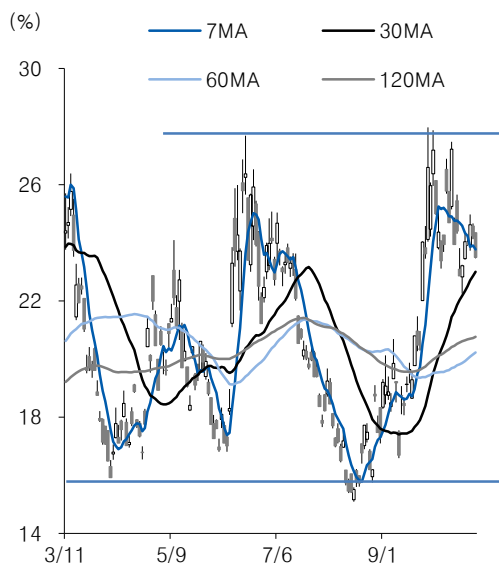
10월 들어 KOSPI가 완만한 반등 시도를 보이는 가운데 KOSPI200 옵션 변동성지수도 고점대를 형성하는 모양이다. [차트1]에서 볼 수 있듯이 VKOSPI는 9월 말에 6월 고점대에 도달한 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단기 고점을 낮추는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KOSPI의 반등은 VKOSPI의 급락과 더불어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단기 하락세를 형성해야 주가도 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VKOSPI는 아직 3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못했지만 동 이평선 이탈시 하락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KOSPI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닥권 형성 과정에서 주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말부터 하락 시 매수하고 반등 시 매도하면서 작은 등락폭을 이용한 스윙 매매의 패턴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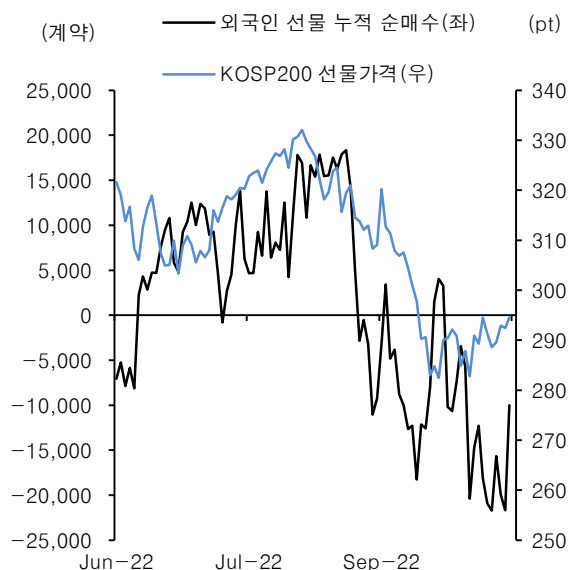
전일 외국인 KOSPI200 선물(미니와 빅 합계) 순매수가 10,285계약을 기록했다. 외국인 파생 포지션은 변곡점에서 큰 폭의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하다가 방향성 형성 시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 어제의 대규모 순매수는 방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정된다.

[차트1] VKOSPI 일봉, 지난 6월 고점대 넘지 못한 가운데 점차로 축소되는 모습. 본격 하락 국면 진입 가능한 상황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200 선물, 최근 바닥권에서 외국인 선물 포지션 선물 가격과 역행 전일 선물 가격 상승 시 순매수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발표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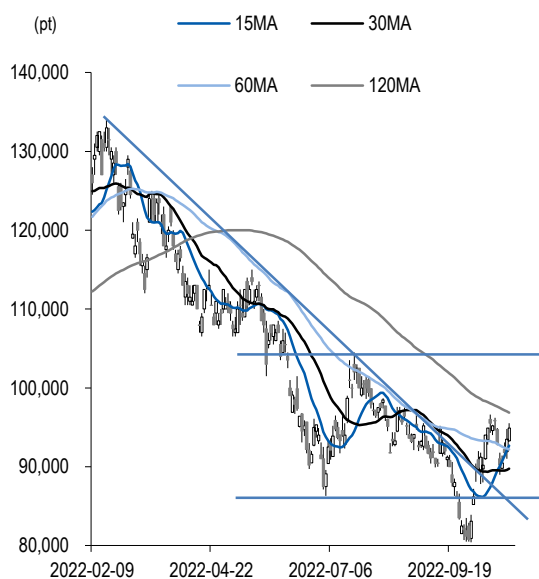
전일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1조 6,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5%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 2조 1,569억원을 크게 하회했다. 그러나 주가는 전일 +0.43% 상승했고, 10월 중 주가 흐름도 매우 양호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0월 중반까지 이어진 상승으로 장기 하락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했고, 60일 이평선 회복을 확인했다. 아직 120일 이평선 저항을 넘지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60일 이평선을 회복하면 전저점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차트4]에서 볼 수 있듯이 SK하이닉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고, 지수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2019년 4분기에 영업이익 저점이 나왔지만 영업이익 급감이 있었던 2019년 1분기에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 3분기까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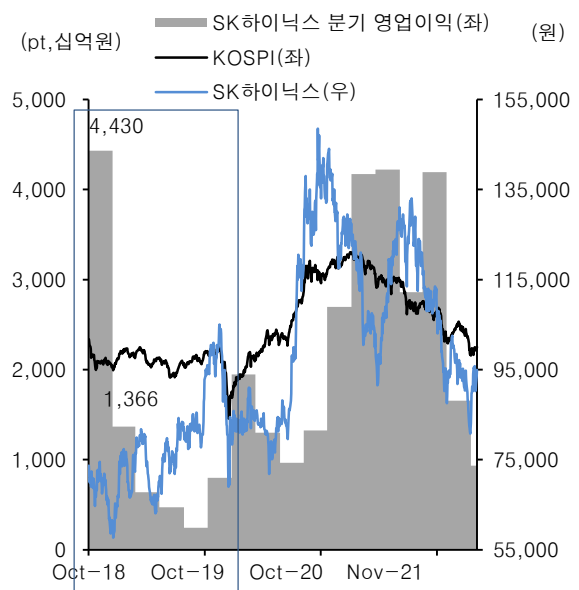
현재 컨센서스로는 내년 3분기가 실적 저점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이익 감소 폭 역시 점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변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급감이 있었던 올해 3분기가 주가상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차트3] SK하이닉스 일봉, 장기 하락 추세선 회복한 가운데 60일 이평선 회복 확인. 가격 조정 제한될 가능성 높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SK하이닉스 영업이익과 주가 추이, 주가는 실적에 비해 선행하는 모습 보여 주가 하락 제한 가능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